「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아시아·태평양회의」 참가 결과 보고

2011. 12.

기 획 조 정 관

국제협력담당관

목 차

Ⅰ. 개 요

1. 회 의 명 ····· 3
2. 회의장소 및 출장자 ····· 3
3. 조직위원회 및 개최목적 ····· 3

Ⅱ. 회의 프로그램 ····· 4

Ⅲ. 주요활동

1. 개회연설 및 세션(주관적 웰빙) 좌장직 수행 ····· 7
2. OECD 통계국장과 통계협력방안 논의 ····· 8
3. 주요발표내용 ····· 9

(1) Setting the scene ····· 9

(2) 국가별 웰빙측정 사례 ····· 10

• 일본 (p.10) / 부탄 (p.11) / 뉴질랜드 (p.12)

(3) 병렬세션 ····· 13

• 주관적 웰빙 (p.13) / 불평등 (p.14) / 연령 및 성인지 (p.16)

(4) 공식통계의 역할 및 결론 ····· 18

Ⅳ. 기 타

1. 개회사 ····· 20
2. 「주관적 웰빙」 세션 좌장 보고 ····· 24
3. 주요활동 사진 ····· 26

Ⅴ. 발표자료 (별첨)

Ⅰ 개 요

1. 회 의 명

○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아시아.태평양회의 (Asia-Pacific Conference on Measuring Well-being and Foste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2. 회의장소 및 출장자

○ 회의장소 : 일본 도쿄,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회의일시 : 2011. 12. 5.(월) ~ 12. 6.(화)

○ 출 장 자 : 김회정 기획조정관, 서경숙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참가규모 : 각 국 통계청, OECD, UNESCAP 등 국제기구, 학계 교수 등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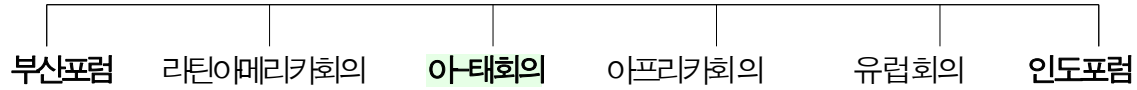
3. 조직위원회 및 개최목적

○ 조직위원회 : 한국 통계청, OECD, ESRI, UNESCAP, ADB

- 회의주관 : OECD,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연구원(ESRI)

○ 개최목적 : 제3차 OECD 세계포럼('09, 부산) 이후 제4차 포럼('12.10., 뉴델리) 전까지 추진 중인 4개의 지역회의 중 하나로, 웰빙 측정과 관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제4차 포럼의 아젠다 세팅에 반영

<세계포럼관련 지역회의 마일스톤>



('09.10월) ('11.5월) ('11.12월) ('12.4월) ('12.6월) ('12.10월)

Ⅱ 회의 프로그램

1일차 - 12.5.(월)	
08:30-09:00	회의등록
09:00-10:00	**개회식** . 환영사(Motohisa Furukawa, 경제재정장관) . 개회사 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 Shuzo Nishimura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 Juzhong Zhuang (ADB 차석 이코노미스트) Kilaparti Ramakrishna (ESCAP 동.북동아시아 소장) **김회정 (한국통계청 기획조정관)**
10:00-10:30	**기조연설** . Measuring Well-being : Bhutan's pursuit of Gross National Happiness (Karma Tshiteen, Secretary,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부탄)
10:30-10:50	Refreshments
10:50-11:10	**Setting the scene** . Martine Durand(OECD 통계국장)
11:10-14:50	**Theme 1 : Material conditions** **(좌장: Shailaja Chandra, 인도 거버넌스변화 이니셔티브센터 부원장)**
11:10-11:50	**전체회의** . 좌장 (10') . Overview address : Juzhong Zhuang, ADB 차석 이코노미스 (20')
11:50-13:00	**병렬회의**

(1a) 불평등: 결과 및 기회	(1b) 고용 및 인적자본	(1c)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 좌장 : Ritil Brahim(방글라데시)	- 좌장 : Douglas Brooks (ADB)	- 좌장 : Takashi Omori (동경대학)
- 패널리스트(3명)	- 패널리스트 (3명)	- 패널리스트 (3명)
.Roger Ricafort(홍콩, Oxfam)	.Kensuke Tanaka,(OECD 개발센터)	.Phung Thithanh T.(베트남)
.Romina Boarin(OECD)	.Pattama Teanravisitsagool(태국)	.Leslie Tang(홍콩, 통계국)
.Inhoe KU(한국, 서울대학교)	.K Narayanan Unni(인도 통계청)	.Geoff Woolcock (호주그리피스대학)
.토론 (30')	.토론 (30')	.토론 (30')

13:00–14:00	Lunch

1일차 - 12.5.(월)

14:00–14:50	**전체회의** . 병렬회의 결과발표 (workshop chair별 각 10') . 전체토론 (15') . 결론 (session chair, 5')		
15:00–18:00	**Theme 2 : Sustainability and future challenges** **(좌장: Naoto Yamauchi, 오사카대학)**		
15:00–15:40	**전체회의** . 좌장 (10') . Overview address : Niu Wenyuan, 중국 정부 경제 자문관(잠정) (20')		
15:40–16:50	**병렬회의**		
	(2a) 거버넌스와 참여 - 좌장 : Romulo Virola (필리핀) - 패널리스트 (3명) .Imogen Wall(호주통계청) .Terue Ohashi(일본, 토호쿠대학) .Robert Manchin(갤럽) .토론 (30')	**(2b) 연령 및 성인지 관점** - 좌장 : Porametee Vimolsiri(태국) - 패널리스트 (3명) .T.Nishikawa(일본, 아라카와시장) .Yoko Nakagaki(일본, 내각부) .Romina Boarini(OECD) .토론 (30')	**(2c) 자연재해 및 환경위험에 대한 취약성** - 좌장 : Vince Galvin(뉴질랜드 통계청) - 패널리스트 (3명) .Nick Johnstone(OECD) .Johan Havenaar(Utrecht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Yukiko Uchida(교토대학) .토론 (30')
16:50–17:10	Refreshments		
17:10–18:00	**전체회의** . 병렬회의 결과발표 (workshop chair별 각 10') . 전체토론 (15') . 결론 (session chair, 5')		
19:00–	. 리셉션		

<table>
<tr><th colspan="4">2일차 – 12.6.(화)</th></tr>
<tr><td>09:00–12:00</td><td colspan="3">Theme 3 : Quality of life and societal behavior
(좌장 : Haishan Fu, ESCAP 통계국장)</td></tr>
<tr><td>09:00–09:40</td><td colspan="3">전체회의
. 좌장 (10’)
. Overview address: Shinsuke Ikeda, 오사카대학 (20’)</td></tr>
<tr><td>09:40–10:50</td><td colspan="3">병렬회의</td></tr>
<tr><td>(3a) 주관적 웰빙
– 좌장 : Hoe Jeong Kim
(한국 통계청)
– 패널리스트 (3명)
.Yoshiyuki Sodekawa(일본 덴츠 광고회사)
.Marco Mira D'Ercole(OECD)
.Paul Frijters(호주 퀸즈랜드대학)
.토론 (30’)</td><td>(3b) 사회적 관계
– 좌장 : Wynandin Imawan
(인도네시아 통계청)
– 패널리스트 (3명)
.David Chan(싱가포르)
.Wenmeng Feng(중국 개발연구원)
.Takayoshi Kusago(간사이대학)
.토론 (30’)</td><td>(3c) 생활시간
– 좌장 : Cassandra Gligora
(호주 통계청)
– 패널리스트 (3명)
.Noriko Tsuya(일본 게이오대학)
.Man Yee Kan(영국 옥스퍼드대학)
.Jayoung Yoon(한국,노동연구원)
.토론 (30’)</td></tr>
<tr><td>10:50–11:10</td><td colspan="3">Refreshments</td></tr>
<tr><td>11:10–12:00</td><td colspan="3">전체회의
. 병렬회의 결과발표 (workshop chair별 각 10’)
. 전체토론 (15’)
. 결론 (session chair, 5’)</td></tr>
<tr><td>12:10–12:40</td><td colspan="3">국가 웰빙과 정책 수립
. Ben Gleisner, 뉴질랜드 재무부, Living Standards Project 팀장</td></tr>
<tr><td>12:40–14:00</td><td colspan="3">Lunch</td></tr>
<tr><td>14:00–16:00</td><td colspan="3">Round table (좌장 : Brian Pink, 호주통계청)</td></tr>
<tr><td>14:00–16:00</td><td colspan="3">. 소개 : 좌장 (10’)
. Kaushal Joshi, ADB (15’)
. S K Das, 인도 통계국 (15’)
. Yeong Seop Rhee,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5’)
. Haishan Fu, ESCAP 통계국장 (15’)
. Eric Bensel, PARIS 21 (15’)
. 종합토론 (15’)
. 결론 : 좌장 (5’)</td></tr>
<tr><td>16:00–16:20</td><td colspan="3">Refreshments</td></tr>
<tr><td>16:20–18:00</td><td colspan="3">폐회세션 : Moving forward the measurement agenda</td></tr>
</table>

	. 좌장 :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장 . 회의결과 요약 : 좌장 (15') . 종합토론 (20')

Ⅲ 주요 활동

1. 개회연설 및 세션(주관적 웰빙) 좌장직 수행

○ 금번 회의의 조직위원회 멤버로서 **기획조정관이 한국 통계청을 대표하여 개회사(Introductory address) 발표** (Ⅳ. 기타 참조)

- 최근 세계 각 국은 OECD의 글로벌프로젝트와 이를 견인하는 세계포럼 등을 중심으로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노력을 지속 추진

.제3차 세계포럼('09., 부산) : GDP를 넘어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세계 확산에 기여

.남아메리카 지역회의('11.5., 멕시코) :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개념에 대한 국가별 시각을 공유, 지표개발 상황을 점검

.OECD, 'How's life?' 보고서 발간('11.10.) : 발전과 웰빙측정의 구체적 결과물 제시

- 동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문화적 배경 및 사회적 기대수준을 반영한 국가별 개발지표, 이니셔티브를 공유하는 기회 제공

.특히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고, 그간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최근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불평등, 고용, 재난, 성인지 등 아태지역의 세부관심 영역별 논의결과는 웰빙 측정 체계 구축의 완성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기획조정관은 **「주관적 웰빙」 세션의 좌장직을 수행**하고, 각 발표내용*과 floor의 논의사항, 쟁점 등을 정리하여 보고 (Ⅳ. 기타 참조)

* (1) 'Fnding "Common Happiness" Through SWB Research', 요시유끼 소데가와 (일본 덴츠광고회사)

(2) 'OECD work on Subjective Well-being', 마르코 미라 데꼴(OECD)
(3) 'Uses of Satisfaction Question', 폴 프리쳐(호주 퀸즈랜드 대학)

2. OECD 통계국장(Martine Durand)과 통계협력방안 논의

❍ **한국을 OECD 통계위원회(CSTAT) 의장단의 부의장으로 선출** 의사 표시

- OECD 통계국장은 '12년 8개국 의장단* 중 한국(통계청장 우기종)을 OECD와의 협조도, 역량, 대륙 안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력한 부의장국 후보로 검토**한다고 설명

* 의장단은 한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덴마크, 캐나다로, 임기는 1년('12.1.1. ~ '12.12.31.)임

- '12년 CSTAT 의장단의 의장은 영국(Jil Matheson, 통계청장)이며, 부의장(2명)은 뉴욕 의장단 회의(3.1.)에서 전체 의장단의 동의를 거쳐 확정 예정이나,

.우리측 요구에 따라 **3월 이전에 의장단내에서 서면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

【 CSTAT 의장단 임원 선출 과정 】

▶ 연말에 차기 연도 OECD 통계위원회(CSTAT)의 의장단 확정

- 의장단은 의장(1명), 부의장(1 ~2명)과 5명 이내의 멤버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년 이상 재임할 수 없음

▶ 의장(chair)과 부의장(vice-chair)은 전체 의장단 멤버의 동의를 통해 결정

- 통상적으로 뉴욕 OECD CSTAT 의장단 회의, 또는 서면(이메일)을 통해 각 의장단의 의사를 타진 후 최종 확정

❍ **제4차 OECD 세계포럼(2012. 10., 인도 뉴델리)시 한국 통계청의 중추적 역할 당부**

- OECD 통계국장은 제3차 세계포럼('09)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제4차 포럼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고위급의 회의 참석을 희망

3. 주요 발표 내용

(1) Setting the Scene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장)

○ **(웰빙 측정)** 기존 GDP 중심의 경제발전 측정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면서 OECD는 정확한 사회발전 및 웰빙 측정을 위한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노력

- 최근 정치적 지원* 및 지역.국가 단위의 웰빙 측정 노력이 증가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Stiglitz-Sen-Fitoussi 위원회' 설립(2009)
EU 'GDP and beyond' 위원회' 설립 및 2020 아젠다 설정(2009, 2010)
G20 Leaders statements(2009, 2010, 2011) 등

○ **(OECD, Better Life 소개)** OECD는 최근 10년 동안 발전 및 인간의 삶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How's Life?' 보고서와 'Your Better Life Index'를 작성

- Better Life Initiative의 기본구조는 크게 '삶의 질'과 '물질적 생활조건', '지속가능성' 세 축으로 구분됨

.(삶의 질) 건강, 일가정 양립,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거버넌스, 환경의 질, 안전, 주관적 웰빙

.(물질적 생활조건) 소득 및 부, 직업과 임금, 주거

.(지속가능성) 자연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 **(주요결과)**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국가는 없으며, 국가별 강점과 약점이 다르지만 공통된 경향은 나타남

-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더불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연계가 약함.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높게 나타났음

○ **(향후계획)** OECD 개발 전략으로 개발도상국에도 웰빙측정 아젠더를

확산하고 각 국의 정책결정을 위해 신규 측정방법의 사용을 장려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

(2) 국가별 웰빙측정 사례

가. 일본의 웰빙측정 사례 : Sustainability and Future Challenges

○ **(배경)** 웰빙측정위원회(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는 일본의 웰빙측정 결과 보고서를 발간('11. 12. 5.)

- 일본 국민은 소득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관적 만족도는 낮은편(이스터린 파라독스)

- 미국과 달리, 연령이 많아질수록 일본국민의 행복도는 감소

○ **(측정대상)** 동일본 지진 이후, 일본은 웰빙의 관점에서 재난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지표 선정시, 유아.청소년기, 성인, 노인 등의 생애주기와 빈곤층, 커뮤니티 소외계층,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동시에 고려

- 일본의 지표는 '주관적 웰빙'에 포커스되어 있고, 비록 현재 관련 통계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자료수집 관점에서 선정, 단일 종합지수는 산출하지 않았음

○ **(지표)** 일본의 웰빙은 크게 ① 경제.사회적 조건(Economic and Social Conditon), ② 물질적.정신적 건강(Physical and Mental Health), ③ 관련성(Relatedness) 세가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포함

① 경제.사회적 조건(5) : Basic needs, Housing, Parenting/Education, Work, Institution
② 물질적.정신적 건강(3) :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Relevant to both
③ 관련성(4) : Lifestyle, Personal Ties, Ties with Community, Ties with Nature

- **(정책적 함의)** 웰빙 지표는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신규 정책 도입 등

증거기반 정책 수행에 기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내각부는 전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나. 부탄의 웰빙측정 사례 : Bhutan's Pursuit of Gross Natonal Happiness

❍ 부탄은 GDP 대신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목표로 채택하여 정책에 적용

- GNH(Gross National Happiness)는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웰빙과 영적, 감정적, 문화적 욕구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발 접근법임

- 정부는 정책 도입시 GNH와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정책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고, 동 지표의 측정을 위해 2년 주기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함

❍ GNH는 크게 4개의 축(pillars)으로 구성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문화의 보존과 발전, 환경 보존, 거버넌스

- 부탄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9개의 영역과 3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GNH index를 산출

①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부정적 감정, 영성

② 보건(Health) : 정신 건강,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건강기간, 장애

③ 생활시간(Time use) : 노동, 여가, 수면

④ 교육(Education) : 읽기.쓰기 능력, 취학, 지식, 가치관

⑤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and resilience) : 네이티브 언어 능력, 문화 참여, 예술, Driglam Namzha

⑥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정책수행, 기본권리, 서비스, 정치참여

⑦ 공동체(Community vitality) : 기부, 커뮤니티 관계, 가족, 안전

⑧ 생태 보존(Ecological diversity and resilience) : 생태문제, 환경에

대한 책임, 시골생활의 취약점, 도시화 이슈

⑨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 자산, 주거, 가구 소득

다. 뉴질랜드의 웰빙측정 사례 : Treasury's Living Standards Framework

❍ 뉴질랜드 재무부는 비전 'higher living standards' 성취를 위해 Living Standards Framework을 작성('11.5월)

【 Living Standards Framework 】

	Financial & Physical	Human	Social	Natural
Capital Stocks	Financial wealth Housing Infrastructure	Skills Health	Institutions Trust	Climate Bio diversity Water
Flows	Income Consumption In-kind services	Employment Leisure Innovation	Freedom Security	Environmental services Amenities

- 기술(skills)은 휴먼 캐피탈의 일부로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물적.주관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

- 또한 기술 습득을 위한 광범위한 투자는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 뉴질랜드는 금융, 사회, 자연 영역간의 균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주관적 웰빙을 비롯하여 관련정책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

❍ 동 프레임을 활용하여 Better business case(BBC)*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인프라 관련 투자 효과 등을 파악

* 도로, 빌딩, IT 인프라, 대중교통, 교도소 등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비즈니스를 개발.평가하는데 활용하는 가이던스

❍ 뉴질랜드는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궁극적으로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계획임

(3) 병렬세션

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 'Finding "Common Happiness" Through SWB Research'
(발표자 : Yoshiyuki Sodekawa, 덴츠광고회사)

○ 교토는 시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가치와 경향이 다른 group별로 분석,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교토시의 사례는 각종 자료(macro & micro data)를 활용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어떻게 정책입안자에게 피드백 되어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시사

□ 'OECD Work on Subjective Well-being'
(발표자 : Marco Mira d'Ercole, OECD)

○ 각 국가별로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논쟁점과 도전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OECD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임

- 개념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해 기술하고, 표준 질문모듈*(항목)을 제시

* 국가별로 어떤 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 조사표상의 문항 배치 / 동시에 조사되어야 할 분석변수 / 조사 주기 / 결과활용 방법

○ 질문은 '삶에 대한 평가*(1)' ⇒ 감정 평가**(3~5문항) ⇒ Eudemonic well-being으로 구성

*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0-10 척도)

** 전반적으로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 전반적으로 어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어느 정도 화가 나셨습니까? / 전반적으로 어제 어느 정도 슬프셨습니까?

○ OECD는 동 가이드라인의 개발로, 주관적 웰빙의 공식 측정 국가 증

가, 국가간 비교성 확보, 통계품질 향상, 자료 활용의 유용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Uses of Satisfaction Questions'
(발표자 : Paul Frijters, 호주 퀸즈랜드 대학)

○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부분과 웹을 활용한 마케팅 부분 등 민간 영역에서는 수술환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부문에서도 웰빙을 측정하는 종합지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변수들의 가중평균을 제안

- 실직, 질병 등 인생의 중요한 쇼크 전후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가 측정된다면, 정부는 shadow value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

나. 불평등(Inequalities : outcomes and opportunities)

□ 'Towards Better Measure of Income Inequality'
(발표자 : Romina Boarini, OECD)

○ 금융위기 이후, 빈곤율과 청년 실업률,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소득은 개인의 웰빙을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원으로, 소득 불평등은 인생의 모든 기회에 영향*을 미침

*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OECD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함에 있어 현재의 커버리지와 시의성을 높이고, 소득을 자산, 소비와 아울러 결합분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방안을 제고

- OECD의 소득, 소비, 자산 마이크로 데이터 전문가그룹은 survey를 통하여 가구의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중이며, 동 자료의 분석을 위한 프레임을 제안

- 또한 국민계정에 불평등의 개념 도입 방안 연구(OECD - Eurostat 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SNA)

□ 'Measuring Relative Poverty' (발표자 : Inhoe Ku, 한국 서울대학교)

○ (절대빈곤)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은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로 3년 주기의 서베이를 통해 마켓 바스켓(기초 생필품)을 구성

- 최저생계비는 공공 부조를 위한 기준이며, quasi-absolute 빈곤은 부분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

○ (상대빈곤) 빈곤은 사회의 개발 수준에 따른 상대적 개념으로, 절대빈곤이 '경제성장'에 상응한다면 상대빈곤은 '불평등'에 초점

- 보통 상대빈곤선은 메디안 소득의 50%로 설정되는데, 공공정책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문이 존재

- 따라서 Quasi-relative poverty를 포함하여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고 빈곤관련 정책에 활용 가능한 측정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 'Wellbeing, Power and Right' (발표자 : Roger E. Ricafort, Oxfam)

○ 웰빙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법은 지역별로 표현방식은 달라도, 논의 수준이 상당히 유사

Stiglitz-Sen-Fitoussi	부탄 GNH	Voies of the Poor	Xiaokang Indicators
Health	Health	Bodily well-being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Economic security	Living standards	Material well-being	Economic development
Balance of time	Time use		
Political voice	Governance		Democracy and law
Social connections	Community	Social well-being	Social harmony
Environmental conditions	Environment		Environment
Personal security		Security	
Subjective measure of quality of life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quality of life
	Culture		Culture

❍ 또한 개발 측면에서 웰빙의 분석 영역(차원)도 광의적으로는 유사

Domainsi	Oxfam Hong Kong	PADHI Sri Lanka	University of Bath, UK
Economic	Self-sustenance	Acessing resources	material
Psychological	Self-esteem	Experiencing competence and self-worth	subjective
Psychological	Self-determination	Exercising participation	
Social	Responsibility	Building social connections	relational

❍ 웰빙의 프레임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평등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외적으로 발전과 평등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

❍ 정부, 지역사회 등 각 주체별 웰빙 발전을 위한 post-2015 글로벌 아젠다 제안

- 지역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역량 개발, 정부는 웰빙 촉진 관련 정책적 논제와 기관 설립, 전문가(기관)는 웰빙에 기반한 개발계획 실행 등에 주력

다. 연령 및 성인지(Age and gender perspectives)

□ 'For the Local Community Where Everyone Can Feel'
(발표자 : Taiichiro Nishikawa, Arakawa 시장)

○ 일본 아라카와시는 '고령화'와 '성평등' 관련 이니셔티브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

- (고령화) 일과 지역사회 활동을 늘이고, 고령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건강 유지를 위한 방안 추진

- (성평등) 성평등(gender equality) 관련 교육 실시, 가정 폭력 감소를 위한 각 기관과의 연계 증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 후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

○ 아라카와시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Gross Arakawa Happiness (GAH) 지표를 작성

- 영역은 크게 보건, 교육, 기업, 환경, 문화, 안전 6개로 구성하고, GAH 향상을 위해 시민 우선의 행정 기반을 확립

□ 'Elderly People's Well-being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발표자 : Yoko Nakagaki, 일본 내각부 양성평등국)

○ 최근 일본의 각 부처에서는 성별로 구분된 통계 작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 간 사회적 상황의 차이, 자원의 분배 등을 파악 가능하게 하여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선호도조사(내각부, 2010)'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웰빙이 남성보다 높았고,

- 고령자의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가족, 재정 상태 세 가지로 나타남

. 고령자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독신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상태 또한 여성이 더 나은 편임

. 아울러 성별 장기요양보험 가입실태, 고용상태, 양성평등 위원회의 제안*(2008) 등을 소개

* 성별 고령자의 고용시장 및 사회적 참여 촉진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 지원을 위한 체계 개선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 영위 지원
성별 차이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확대 등

(4) 공식통계의 역할 및 결론

가. 아태지역에서 공식통계 부문에 대한 도전과제

(발표자 : Brian Pink, 호주 통계청)

❍ 정치인, 국가공무원, 미디어, 기업 및 일반 국민 등 공식통계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 특히 공공부문 통계 작성자(official statistician)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지원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각 국의 통계청은 국가통계 핵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등을 위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 확보 필요

- 또한 국가통계는 경제, 사회, 인구, 환경의 주요 4가지 영역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함

❍ 국가통계 작성의 주요 자료원으로 출생, 사망, 납세, 교육 등 '행정자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은 타 정부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동 자료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

○ ESCAP 지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술지원은 우선순위 선정 등 협력.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

나. 결 론(Moving forward the measurement agenda)

(발표자 :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장)

○ **(아태회의의 주요 목적)** 아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방법을 심화, 주요정책 이슈 분석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논의하고

- 향후 작업을 위한 프레임 설정 등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

○ (Theme1 : Material) 고용, 교육의 질, 사회적 보호를 비롯하여 자산 및 분배, 소득을 중요한 아젠더로 고려

- 아태지역은 GDP 성장 및 도시화 관련 의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가난한 국가의 빈곤 측정과 아울러 중산층(middle class)에 대한 정보(도시 생활비 등)를 수집할 수 있는 측정방법도 고안 필요

○ (Theme2 : Sustainability and future challenge) 아태지역에서 '고령화'는 웰빙 측정과 평가를 위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아젠다임

- 또한 웰빙 측면에서 여성에게는 어린이 및 노약자 케어, 비친화적 근무환경, 차별 등 쉽지 않은 도전과제가 존재하며, 거버넌스도 별도의 영역으로 인지되어야 함

○ (Theme3 : Quality of life and societal behaviour) 아태지역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 사회 및 가족 관계는 웰빙의 여러 영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 도시화 등은 자연과 사회적 관계의 질을 변화시킴

-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웰빙, 즉 일.가정 양립, 여가,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료원으로 각 국의 통계청은 항목 추가 등을 통해서 분석능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cross-cutting issue) 웰빙 측정시 도시.농촌, 지역 등 공간적 개념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주관적 웰빙, 거버넌스,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의 연구가 필요

- 신규 측정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통계역량의 차이를 인지 : 아태지역의 경우 ESCAP 통계위원회의 역할 기대

- 공식통계와 비공식통계의 역할 및 과학.비지니스분야 등을 고려

○ **(뉴델리포럼에의 기여)** 인구(고령화), 성인지, 거버넌스, 자연재해는 아태지역에서의 주요 이슈로, '12년 뉴델리 포럼시 연계방안 검토

Ⅳ 기 타

1. 개회사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Asia-Pacific Conference on Measuring Well-Being and Foste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As a membe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is Conference,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speakers and participants who have travelled great distances to attend this meeting.

As you all have noticed, in the recent years, many countries around the globe have exerted continuous efforts to measure ‘wellbeing and social progress' under the umbrella of the OECD

World Forum and recommendations of the Stiglitz-Sen-Fitoussi report.

To address this important issue together, the Second Regional Conference bridging the 3rd Busan Forum and the upcoming Delhi Forum is launched here in Tokyo today.

Let me briefly recap the 3rd Busan Forum in 2009 and subsequent activities for the past two years. The Busan Forum attended by 2,000 people from over 130 countries promoted a global shift of measurement focus from 'economic development' to 'wellbeing'.

It laid a crucial foundation for driving a consensus on the need to take follow-up actions among a wider pool of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e First Regional Conference held in Mexico in May 2011 enabled us to sha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gress made on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and to look into various initiatives for constructing the indicators framework.

Two months ago, in commemoration of its 50th anniversary, the OECD made a breakthrough by publishing the "How's Life?" report. This report establishes statistical and policy agendas needed to cast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of measuring wellbeing and social progress.

However, despite all of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made thus far, many challenges remain to be addressed to move "Beyond GDP".

With this in mind, I believe that this Conference will set the stage for another round of fruitful discussions on this agenda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icular, this meeting will offer an important venue to share national initiatives to measure wellbeing,

check on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ion, and ponder on what is needed to move this agenda forward.

For the next two days, we will exchange our experiences and insights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Let me briefly share with you the Korean experience, because I believe it can be a good example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Korea accomplish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experiencing the socio-economic changes resulting from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growing bipolarization and inequalities in the 2000s, we realize that rapid economic growth alone is insufficient for meeting all the needs of the people.
Despite the vigorous growth, Korea faces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 low birth rat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underdeveloped social safety net, a high suicide rate, and swelling social conflicts along the dimensions of economic resources, regions, and generations.

In response to this social environment, the policy priority has been shifted from the sole focus on economic growth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at is, 'qualitative growth' rather than 'quantitative growth'. New polic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and inclusive growth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and Statistics Korea is making robust moves to support policy makers with their needs of new statistics.

This year, KOSTAT conduct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volving economists, sociologists, and psychologists to build a conceptual

framework, and to determine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quality of life. We constructed an indicator system composed of nine domains and one hundred and eleven indicators. The data for quality of life come from both existing and new sources. Once the data are compiled, KOSTAT will create an on-line platform for the public and policy makers to utilize data and compute their own index.

Distinguished Participants,

Today we will examine the progress of measurement efforts made in a wide variety of areas : inequalities, employment, housing, governance, natural disasters, subjective well-being, time use and so on.
Discussion on these topics will help us to refine the conceptual definitions and measurement methodology, to strengthen the statistical basis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to facilitate a transition towar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This meeting will be a place to discuss how statisticians and policy makers work together effectively to measure and fulfill social progress.

I believe the outcomes of this conference such as deepening of knowledge and regional agenda setting will greatly contribute to advancing the measurement initiative and provide a crucial momentum toward the 4th OECD World Forum in India next year.

It is our solemn duty to respond to the calls of society to measure whether we are doing better or worse in terms of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This is required not only for the current generation but also for generations to come. Measurement affects people's conception of the real world by disclosing it in objective numerical

information, and thereby, ultimately changes their behavior and lives. This is why measurement is the first step to take to make any significant progress in this area.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everyone attending this meeting, and hope this platform will guide the region towards building a vision for better lives.

Thank you very much.

2. 「주관적 웰빙」 세션 좌장 보고

Now, let me briefly present on what have been discusses in Session 3a, Subjective Well-being. In the Session, three speakers from statistical, academic and private organizations gave very insightful and thought-provoking presentations, highlighting the salient importance of collecting subjective information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pondering on the future trend based on their observations on the recent changes.

The first speaker in our session, Mr. Sodekawa of Dentsu Innovation Institute explained the happiness surveys carried out by Kyoto City Government. Then we discussed how the data on people's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living conditions can be utilized for municipal policy planning.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for groups having different soci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innovation. Kyoto City used the results as a preliminary

data source for policies to increase the levels of the residents' happiness. This case of Kyoto shows how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trends in life satisfaction can be agreed in small group by merging macro and micro data

Our next speaker was Mr. Marco Mira D'ercole from the OECD. Based on his presentation, we discussed the motivations which led many countries to direct their attention to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We touched upon ke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properly measure subjective well-being, such as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response burdens, and quality improvement of measurements. The OECD's current research to develop guidelines o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eems to be a very important next step forward. I think that it will be a great building block to make more reliable, official subjective well being statistics.

Mr. Frijters from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gave a presentation on how subjective satisfaction tools are used in the private sector, medical sector and internet web site, and what impact this trend will have on the public sector. Satisfaction surveys are actively carried out in hospitals, elderly care facilities, and marketing companies in which the results are used as preliminary data to improv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lso he said that if life satisfaction is compared before and after major shocks such as job loss and illness, government can capture the shadow values for such events which are not generally easy to price. He also gave us some tips and conditions to adopt a new aggregate index for government sector in measuring well-being. He proposed that weighted average of a set of objective looking

variables that are measured over time including life satisfaction.

We still have many challenges ahead, but I feel that we are near a turning point in working out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When the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becomes more universal, the analysis of its correlation to objective indicators will be vitalized, and this will provide a critical impetus to the development in the overall measurement of well-be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3. 주요활동 사진

【기획조정관 개회사 연설】

【좌장으로 세션 소개 중】

【마르꼬 미라 데꼴 발표 중】

【Theme 3 종합세션 준비 】

【주관적웰빙 세션 보고】

V 발표자료(별도첨부)

1. Setting the Scene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장)

2. 국가별 웰빙측정

□ (일본) Sustainability and Future Challenges

□ (부탄) Bhutan's Pursuit of Gross Natonal Happiness

□ (뉴질랜드) Treasury's Living Standards Framework

3. 병렬세션

□ (OECD) OECD Work on Subjective Well-being

□ (Oxfam Hong Kong) Wellbeing, Power and Right

□ (일본 내각부) Elderly People's Well-being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4. 공식통계의 역할 및 결론

□ (Brian Pink, 호주 통계청) Challenges for Official Statistics in the Asia/Pacific region

□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장) Tentative Conclusion